

하나님을 버린 백성의 말

사무엘상 8:4-9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

본문 말씀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당시 판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장로들은 행정적인 일들은 처리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공정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믿지 않았고, 장로들은 사사 제도를 폐지하고 왕을 세우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과 장로들의 의견은 사무엘에겐 마음이 상하지만,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는 숨어있는 저의가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리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민족 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싶다고 한 말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앞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대신 질 사람을 두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울 때 섬김이들은 지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장로들은 전쟁의 의무를 왕에게 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왕의 첫번째 임무는 율법을 계속 배우고 읽는 것이지, 전쟁의 의무는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대신할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합당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이는 현대 기독교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도 섬기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만 교회에 가게 됩니다. 혜택만 누리고 교인으로서 지내려는 것은 본문 말씀의 사사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섬기고 배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